



30일 오전 서울시 중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킥오프 기자회견에서 박용수 EAFF 사무총장(왼쪽부터), 파울루 벤투 남지축구대표팀 감독, 콜린 벨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 홍영보 대한축구협회 전문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투 감독 “첫 한·일전 진지하게 임할 것”

E-1 챔피언십, 남자부 한국·일본·중국·홍콩 출전 해외파 차출 못 해… “새로 선발될 선수 있을 것”

첫 한일전을 앞둔 파울루 벤투 감독은 “진중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킥오프 기자회견에서 “한일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잘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년마다 열리는 E-1 챔피언십은 국

제축구연맹(FIFA)·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대회가 아니고 A매치 대에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해외파 선수를 차출할 수 없다. 대회의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한일전 만큼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반일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일전은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벤투 감독은 “한일전이 그 어느 경

기보다 치열한 라이벌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한일전은 우리 팀의 대회 마지막 경기인데, 두 경기를 잘 치르고 마지막 경기까지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내파 선수만으로 나서야 하는 이번 대회는 벤투 감독에게 그동안 써 보지 않은 선수들을 실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무대다. 벤투 감독은 “이번 대회를 새로운 선수를 관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표팀에 새로 선발되

는 선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이 대회에서 최근 2회 연속 우승했다. 팬들의 기대치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다운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1 챔피언십은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구덕운동장에서 열린다. 남자부는 한국, 일본과 중국, 홍콩이 참가한다. 200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한국은 통산 4회 우승한 최다 우승국이다. 연합뉴스

SK 김광현·두산 린드블럼, 메이저리그 가나

MLB구단들 관심 이어져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SK 와이번스의 김광현(31)과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투수 조쉬 린드블럼(32)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디에슬렉틱의 칼럼니스트 켈 로즌솔은 3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국의 이 선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좌완투수 김광현은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길 바라고 있다고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현의 소속팀 SK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광현은 올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190%이닝을 책임지며 17승 6패 평균자책점 2.51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두산은 통합우승으로 이끈 린드블럼도



김광현(왼쪽)과 린드블럼(오른쪽). 연합뉴스

림도 빅리그 구단들의 시선을 끈다. MLB 네트워크의 칼럼니스트 존 모로시는 같은 날 SNS에 “자유계약 선수인 린드블럼은 한국시리즈 우승 후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받고 있다”며 “지난해 SK에서 우승한 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와 비교된다”고 전했다. 린드블럼은 올 시즌 30경기에 나와 194%이닝을 책임지며 20승 3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주스포츠클럽 농구반 전국교류대회 참가

유일한 ‘여학생 팀’ 구성

사단법인 제주스포츠클럽(회장 부평국)이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체육회(영일만스포츠클럽)가 주관하는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스포츠클럽 간 축제의 장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대회를 통한 스포츠클럽 브랜드 이미지 제고, 선수수련 확대, 엘리트 선수 육성·강화에 취지를 뒀다. 제주스포츠클럽은 8개 정식종목

가운데 농구 초등부 전문반과 취미반에 출전한다. 전문반과 취미반은 지난 8월 선수 선발전을 거쳐 김홍훈 전문지도자와 프로출신 정락영씨의 지도 아래 연습에 매진해왔고 최근 열린 2019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전문반은 여학생들로만 구성됐다. 이번 대회 농구 전문반 참가팀 중에서 유일한 여학생 팀이다. 교류대회 출전을 계기로 유소년 여자 농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64) 751-733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女축구대표팀 벨 감독 “3전 전승이 목표”

콜린 벨 감독, 데뷔 무대 국내파 대표팀 승선 기회

콜린 벨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 감독이 데뷔 무대인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에서 ‘3전 전승 우승’을 이루겠다고 큰소리 쳤다. 벨 감독은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E-1 챔피언십 킥오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E-1 챔피언십은 2년마다 동아시아 최고를 가리는 대회다. 여자부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가 부산에서 열려 홈 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게 세계 톱 클래스 팀인 일본과 중국은 버거운 상대다. 하지만 벨 감독의 목표는 높았다. 그는 “이번 대회가 내년 도쿄 올림픽 최종예선을 대비하는 대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회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벨 감독은 또 “해외파 차출이 어려운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파 선수들이 대표팀에 승선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월드시리즈 승부는 최종 7차전으로… 워싱턴 내셔널스 앤서니 랜덴이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월드시리즈(7전 4승제) 6차전 1회 중 1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워싱턴은 홈런 3방을 앞세워 7-2로 승리했다. 1~2차전에서 이긴 뒤 양 방에서 3~5차전을 모두 패했던 워싱턴은 기자회견 해 휴스턴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전통무예진흥 국제학술대회 11월 1-2일 제주 팔레스호텔

(사)대한무도학회(회장 양명환 제주대 교수)가 주최하고 제주대 체육학과와 해양스포츠센터가 주관하는 ‘2019 전통무예진흥 국제학술대회’가 11월 1일~2일 제주팔레스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대한무도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제주 전통무예 복원을 위해 기획됐다.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세계화’라는 대주제 아래 국내외 전통무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해를 통해 무도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문후속세대들에게 무술·무

예의 국제적 담론의 장을 제공한다. 서울대 나영일 교수, 대한본국검 예협회 임성득 총재, 용인대 김의환 교수가 기초강연을 하고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최석규 교수, 전남대 김대일 교수, 제주대 박경호 교수가 주제 강연에 나선다. 벨기에, 미국, 중국, 대만 등 해외 유명 학자들도 제주를 찾는다. 발표 논문은 33편에 이른다. 양명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적으로 무도학과 전통무예에 대한 학술적 위상과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제주 전통무예 보존과 복원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동행 11:55 숨터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도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백꽃 필 무렵(재)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다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수상한 정보 9:00 2019 SBS D포럼 변화의 시작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10:15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베르와 노래해요 8:00 당당맨 유치원 9:30 라퐁돔 달팽이 10:00 지식의 기쁨 12:10 한국교육의 미래를 말한다 15:10 코코몽3 15:55 슈퍼공룡파워 16:10 예술이 놀자 16:40 당당맨 유치원 17:30 페파 피크 19:00 레이더그와 블랙캣 20:30 자이언트 펭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명의 기적 13:05 KBS 재난방송센터 14:00 KBS 뉴스 14:10 위클리 캡스 주리링 14:25 쿨순이의 울돌꼬실(재) 14:40 시노스톤 15:10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시작님이 미쳤어요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17:30 동물의 왕국	12:10 태양의 계절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퐁퐁 17:15 퐁퐁콩 윈다스타 17:30 링크런예수집	12:00 12 MBC 뉴스 12:20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3:20 푸르기 식사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기억록, 100년을 탐험하다(재) 16:30 뽀빠이 16:40 황금정원(재) 17:00 5 MBC 뉴스 17:25 앙코르 MBC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전국 TOP10 가요소(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원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극점관용임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영경의 가톨릭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KBS 뉴스 9 22:00 다큐 인사이드 22:55 더 라이브 23:35 숨터 23:40 KBS 네트워크 특선 울긁유지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1: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3:10 해피투게더	18:25 데미지행 길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21:30 어쩌다 발견한 하루 22:05 다큐에세이 그사람 23:05 제주MBC 시사간전	18:00 행복실제 앞배기 19:00 제주를 말한다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2:00 시크릿 부티크 22:40 시크릿 부티크 23:10 접속! 무비월드 1부 23:50 접속! 무비월드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대한민국 구석구석 9:30 석학강좌 10:30 나 별명은 대통령 13:00 KCTV 13시 뉴스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10 일마에요 17:40 KCTV 시청자세상 18:00 대한민국 구석구석 19:00 KCTV 뉴스7 20:00 석학강좌 22:00 취미로 먹고 산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31일

김홍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의욕이 강하고 갖듯도 많고 활동도 활발함. 48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물려온다. 60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된다. 다만 일생부부는 마음만 급하다. 72년 기사가 크면 실망이거나 너무 기대는 하지말 것. 84년 신상품과 관련된 업종은 분주해지고 계약이 증가한다.

42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부 갈등 조심. 54년 분실 또는 손재가 발생하니 문서나 지갑을 잘 관리하라. 66년 주변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친목을 지속하라. 78년 직장에서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각이다. 구두에 신경을. 90년 상태를 감파 안아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

37년 동문서답할 일이 생기고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49년 문서운이 원활하고 계약이 성사 되기도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3년 마음이 떠돌아 안정이 안되면 여행에 필요하다. 85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43년 수산종사업 건어물류 회복이 보이나 가게를 청결하게 할 것. 55년 농수산업 종사업은 몸이 분주하다. 이익이 따르고 일손이 필요하다. 67년 집안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를 드려라. 79년 욕망이 풀수있고 내일을 준비하면 결과가 크다. 91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길.

38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 명예가 따른다. 50년 농장이나 과수원은 일손이 부족하다. 62년 답답함이 있으면 자녀와 애로사항을 상의하면 일이 호전. 74년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86년 뒷사람의 도움이나 해결을 해야 상사로부터 시련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44년 변통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 5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68년 묵묵히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80년 대인관계를 폭 넓게 갖고 정보도 주변에서 참조하라. 92년 사소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있는 날이다.

39년 참음식을 드시면 말이 날수 있으니 음식 주의. 51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방법을 찾고 협력하면 좋다. 63년 불화나 분쟁이 올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히. 75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칭찬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87년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면 기분이 두배로 좋아진다.

45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또는 길사가 있을 수 있다. 57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러나기 계획을 잘 세워라. 69년 갈등하면 뒷사람 또는 전문가의 상담하라. 81년 기도하는 마음과 안정이 필요하다. 93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지니 내색하면 불리하다.

40년 생각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 일에 진전이 미진하다. 52년 명예 또는 직업에 관한 기쁜 소식이 생긴다. 64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충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77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89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좋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46년 과음이나 늦은 귀가는 나에게 불리하니 삼가하는게 좋다. 58년 유행업,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활동성이 강하거나 능력을 발휘한다. 70년 홍보 광고 마케팅 중개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익이 창출된다. 82년 이성간에는 불화나 논쟁이 따르니 언행조심. 94년 분실 또는 건강증이 올 수 있으니 잘 챙길 것.

41년 뜻밖에 용돈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53년 관재나 구설이 오니 외부 출타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충전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77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89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좋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47년 이동 변화가 필요하며 가족에 안부전화. 근심수가 오기도. 59년 약속이 중절되니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판단을 잘할 것. 71년 중매가 생기거나 기존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생각한다. 83년 자취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시정하는 시정 불 것. 95년 주변과 잘 유희가 되고 즐거움도 따른다.